

월요광장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 광주



이승권  
조선대학교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오늘날 도시 개발의 중요한 이슈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Walkable City) 만들기이다. TED에 소개된 미국의 도시 계획가 제프 스펙(Jeff Speck)의 강연을 보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 만들기가 선진 도시(Developed City)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은 양상이다. 파리의 프롬나드 플라탕테(Promenade Plantee),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 등으로 알려진 도심 산책로는 걷기 열풍의 상징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 만들기의 모델이 되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도 폐선 부지를 ‘푸른 길’로 조성하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도 동참한 바 있다.

제프 스펙의 저서 ‘워커블 시티’(Walkable City)는 도로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제프 스펙은, 도시에서 편안

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척도를 나타내는 워커빌리티(Walkability)가 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워커빌리티가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제프 스펙의 주장은, “이동 수단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동 수단의 변화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암스테르담은 세계 제일의 도시이고 킨포크(Kinfolk) 스타일을 유행시킨 포틀랜드도 대표적인 워커블 시티로 선정된 바 있다.

시각을 확대하면 파리로 이동 수단의 변화를 통해서 도시의 변화를 이끈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파리는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통해서 미래를 수용한다. 미테랑의 그랑 프로젝트(Grands Projets), 사르코지의 르 그랑 파리(Le Grand Paris) 등은 대표적인 파리의 미래 도시 프로젝트이다. 시태성을 중심으로 한 초기의 파리는 신을 위한 공간이었다. 절대왕정 시기의 파리는 왕의 도시였다. 계몽시대(La siele des Lumieres)의 파리는 인류에게 희망을 선사한 빛의 도시가 되었다.

오늘날 인류가 누리는 사상적 자유는 계몽시대가 가져다준 선물이다. 21세기의 파리는 인간을 위한 도시를 지향한다.

인간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파리는 벨리브(Velib)와 같은 이동 수단의 공유를 통해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넘어서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높이기 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프롬나드 플라탕테의 등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수복은 ‘파리를 생각한다-도시 걷기의 인문학’에서, “한 도시가 워커블 시티로 거듭나려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를 조망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이 가능한 보행로를 만들고, 걸어서 이동하는 중간에 자연과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소(Node)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수복이 소개하는 워커블 시티로서 파리는 카르티에(Quartier) 중심의 공간이다. 파리의 카르티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어서 걸어 다니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단위의 공간이다. 광주도 전당을 중심으로 푸른 길과 광주천, 무등산 등을 연결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단위의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인가? 광주의 도심을 걷다 보면 도시 공간이 파편화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도시의 흐름이 단절되어 도시의 맥락을 찾을 수도 없다. 다행스텝 계도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흐름이 교차한다.

이것은 전당이 도시의 핵심 공간(Node)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전당 주변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단절된 도시의 역사를 잊고 상호 접근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의 모델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르 코르뷔지에(1887 ~ 1965)가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시도한 과거의 도시개발 방식은 잊어야 한다.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가 가진 ‘시간’의 흔적을 지우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는 영원히 보존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도시에 대한 인문적 사유를 통해서 도시를 지탱해 온 공동체 공간을 복원해야 한다. 도시는 문화의 총체적 집합소이자 사회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당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자유로운 보행 공간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가 인간의 창의성을 회복하기 위한 보행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면 인간의 존엄과 아름다움이 깃든 도시, 세계 제일의 창의도시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법조칼럼

음주운전에 대한 오해



이대경  
광주지법 판사

광주지방법원에 부임하지 4개월이 되어 간다. 형사단독업무를 맡다보니 광주의 맛과 정을 누리기보다는 기록터미에 쌓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루 종일 재판하면서 다양한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종종 선량해 보이는 사람들을 접할 때가 있다. 대부분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들이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마셨어도 잠을 잔 후 운전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 집 앞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하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인터넷이나 지인들로부터 보고 들어 알고 있는 것이겠으나, 모두 정확하지 못한 정보들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을 때 처벌하게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즉, 0.05%이상 ~0.1%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1%이상 ~0.2%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의 가장 큰 특징은 형의 상한이 다른 범죄들에 비해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형의 하한을 정해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법정형의 상한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범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의 하한, 즉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형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범죄라고 하면 떠올리는 절도, 사기, 횡령, 상해, 폭행 등에도 형의 하한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경우 형의 하한을 정해놓고 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법이 음주운전을 ‘봐줄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게다가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경우 범죄의 반복으로 인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

술을 마시고 난 뒤 몇 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후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일정시점까지는 급격히 증가하여 최고점을 이루다가 그 후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보다 분해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천천히 감소하게 된다. 문제는 알코올의 흡수나 분해속도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흡수나 분해속도가 빠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서 그것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함부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위험하다. 심지어는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마셨다면 그 다음날에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011년 이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의 차량운행은 운전이 아니라고 보아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2011년경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운전의 개념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즉, 현재는 술에 취해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그 거리에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그 장소가 어디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다. 대리운전으로 집 앞까지 왔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서 주차를 해주지 않고서 그냥 가버린 경우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리운전으로 집 앞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꼭 주차까지 하고 갈 것을 부탁해야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법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나면, 그날은 하루 마음씨가 좋지 않다.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그 가족들까지 상당한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차량과는 멀어지는 습관이 정착되어 음주운전 없는 광주가 되기를 꿈꿔본다.

기고

스포츠의 생명은 공평함이다



문종민  
광주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

세계 대학생 올림피아(유니버시아드)이 우리 광주에서 열린다. Universiade(유니버시아드)는 University(대학)와 Olympiad(올림피아 대회)의 합성어로서 올림픽, 월드컵 등에 버금가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다.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바로 자발적 참여의지이다.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친절함, 질서 유지,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 등은 자발적 참여의지의 소산이며 같이 격정하고 염원하는 시민이 늘어날수록 성공의 전망은 밝다고 본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광주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이기에 성공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를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다면 사회·문화적 현상을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배움의 장이 될 것이

다. 즉 지위나 신분, 가난, 국가적 재량과, 정치, 경제, 종교적 다름의 한계를 극복하고 출전한 선수들과 응원을 통해 상호교류를 하는 것은 스포츠를 통한 순기능적 사회화가 가능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스포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상식적 기반과 함께 스포츠행위의 의미와 스포츠가 함의하고 있는 정적적 측면을 알고 관찰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스포츠는 행위의 미학’이라고 한다. 여기서 굳이 행동이라 하지 않고 행위라 함은 단순히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함이 수반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칙준수, 관중 존중, 배려 등은 선수가 갖춰야 하는 기본 덕목이다.

스포츠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 요소는 선수, 관중, 그리고 경기장(시설)이다. 선수와 관중은 경기 중 서로 교호하면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즉 관중은 선수들이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중으로서의 매너를 지켜야 하고 선수는 관중이 만족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더하여 선수가 최대한 기량을 발휘하고 관중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스포츠는 몇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 중 으뜸이 의의성이다. 인간의 생존경쟁은 약한 자가 패하는 공식이 성립되지만 스포츠는 약한 선수(팀)라 하더라도 경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즉 가망이 없을 것 같은 경기가 뒤집히고 약팀이 승리하는 경우가 잦다. 경쟁사회에서는 오를 수 없는 사다리도 당당히 올라 계층상승도 가능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중은 환호하고 대리만족하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또 하나는 도덕성이다.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서서는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 물론 작전상 반칙을 하여 이득을 보기도하지만 가차 없이 페널티를 주어 상대편에 그에 상응한 보상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게임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기가 대부분이지만 혼란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비윤리적 행위로 있다.

도핑(Doping)은 후자의 경우로 금지약물을 복용하여 경기력을 향상 시킨다든지 체중을 조절하는 것 등을 말한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수영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메달을 박탈당하고 선수자격을 일정기간 정지당한 일이 있었고, 88서울올림픽에서는 남자 100M 경기 우승자가 같은 처벌을 받았다.

왜 그런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모든 선수들은 공평한 조건의 훈련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체중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약물의 도움을 받아 훈련을 통하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며, 그로 인해 소중한 생

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사회·문화적 현상에 편승 스포츠가 상품화되면서 선수들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비윤리적 행위로 경기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승부조작을 통해 결과를 왜곡하려 하지만, 이런 불공정 행위를 가려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첨단장비를 동원되고 있다. 그 수단으로 메달리스트들은 경기 직후 소변검사를 실시하여 도핑여부를 가려내고 경기분석을 통해 승부조작 등을 판단한다.

각국 선수단의 입촌이 시작되었고 성공여부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회의 성공 기준을 투입된 경비 대비 수입의 차이로만 계산할 수는 없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를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와 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부심 등 시민의 심리적 가치이다. 이는 자산이란 가치를 넘어 후대로 이어질 유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끝나면 단일 종목은 제외하고는 국제적 종합경기 가운데 광주에서 열릴지 기약할 수 없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오래 기억될 광주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돌아갔으면 하고, 부모님들은 이 기회를 통해 정, 배려, 공평함, 바른 경쟁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 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박탈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은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다.” 옛그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기가 막힌 사유”들로 인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난데없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별)을 예로 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락으로 묶어 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박탈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아특별이 경제 살리기에 역행한다는 말이니 이거야말로 기가 막힐 일이다. 더군다나 야당의 당리당락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 하니 백번을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장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나

社說

‘문화도시 조성’ 과거 약속 국민 기만이었나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 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박탈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은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다.” 옛그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기가 막힌 사유”들로 인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난데없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별)을 예로 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락으로 묶어 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박탈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아특별이 경제 살리기에 역행한다는 말이니 이거야말로 기가 막힐 일이다. 더군다나 야당의 당리당락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 하니 백번을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장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나

했다. 박해자 의원은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은 아특별과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고 했다. 더군다나 박 의원에 따르면 아특별과 영유아보육법을 연계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은 박 대통령이 즐겨 말하는 문화융성사업이자 국책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 때 광주에 와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추진을 약속했고, 당선된 이후 대통령 국정 과제에도 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문화의 집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마치 광주만의 지역 사업인 양 인식하고 발언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 요소를 양산하고 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직거래로 양파값 파동 잠재운 무안 농민들

무안군 풍탄면 달산마을 15개 양파 재배농가가 매년 날뽀기를 하고 있는 양파값 파동을 극복하기 위해 경북 지역 상가와 ‘직거래’를 하기로 했다. 가격 폭락 땀 폐기하고 폭등하면 수입에 의존하는 정부를 더 이상 못 믿겠다며 농가가 직접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비록 무안군 전체 재배 면적의 약 0.78%에 불과하지만 직거래를 통해 유통 채널을 다각화해보겠다는 첫 시도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농민들이 직접 자구책을 강구하게 된 것은 지난 2년간 가격이 폭락했던 양파값이 올해 1kg당 1000원대로 올랐지만 혈값에 팔때기 거래를 이미 마쳐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기 때문이다. 낮은 값에 팔때기로 사들인 중간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현실을 타개해 보자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에 대한 불신도 농가의 변화를 촉발시켰다. 양파값이 떨어질 때는 특별한 대책 없이 폐기 카드를 내밀다가 올해 가격이 모처럼 오르자 출

하가 끝나기도 전에 할당관세(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추는 제도) 등을 통해 수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양파값이 가장 비쌌던 지난 2013년의 경우 무안 지역 농가들은 평균 800원(1kg)에 양파를 판매해 수확비와 운송비 등을 빼고 612원의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당시 평균 소비자가가 무려 3619원에 달해 농민들의 박탈감은 극에 달했다.

양파값 파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생산량이 줄어 시세가 폭등하면 이듬해에는 재배 면적이 늘고 결국 공급 물량이 넘쳐 가격이 폭락하는 양상이 2~3년 주기로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농가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10여 년 전쯤으로 기억한다. ‘오구라 컬렉션’을 접한 적이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주장하는’ 작품들이다. 도자기를 위주로 한 ‘오구라 컬렉션’의 일부를 국내에 들여와 팔려는 골동품 중개인이 유물매 노년 ‘속빈’ 부자들을 속이기 위해 위조한 가품이었던지는 아무도 모른다. 작품들이 팔리면 수십억 원대의 중개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 그 중개인이 실제로 목돈을 만졌는지도 알 수 없다.

지난 22일은 한·일 품 중 하나라며 중개인이 상자 속 신문지를 풀어헤치고 보여 준 비취세 도자기의 유려한 모습에는 말문이 막혔었다. 무엇보다도, 부당하게 해외에 유출된 우리 한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지금까지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허름한 신문에 싸여’ 방황해야 하는 현실에 가슴 답답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오구라 컬렉션은 남선합동전기회사 사장이었던 오구라 다케노스케(1896~1964)가 1922년부터 30년간 일제 치하의 한반도에서 약탈 등의 방법으로 수만 점의 유물을 말한다.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된 1100여 점을 비롯해 공식

확인된 유물만 2200여 점에 이른다. 이 가운데 39점은 일본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당시 그 골동품(?)들이 실제 오구라 컬렉션에 속한 진품이었는지, 아니면 골동품 중개인이 유물매 노년 ‘속빈’ 부자들을 속이기 위해 위조한 가품이었던지는 아무도 모른다. 작품들이 팔리면 수십억 원대의 중개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 그 중개인이 실제로 목돈을 만졌는지도 알 수 없다.

지난 22일은 한·일 품 중 하나라며 중개인이 상자 속 신문지를 풀어헤치고 보여 준 비취세 도자기의 유려한 모습에는 말문이 막혔었다. 무엇보다도, 부당하게 해외에 유출된 우리 한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지금까지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허름한 신문에 싸여’ 방황해야 하는 현실에 가슴 답답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오구라 컬렉션은 남선합동전기회사 사장이었던 오구라 다케노스케(1896~1964)가 1922년부터 30년간 일제 치하의 한반도에서 약탈 등의 방법으로 수만 점의 유물을 말한다.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된 1100여 점을 비롯해 공식

**오구라 컬렉션**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대처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